



거룩한 사랑

알리는 뉴스레터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사업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즉, 사랑의 두 가지 위대한 계명 -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현, 그리고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 목격증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선경지명 (visions),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거의 매일 모린 (Maureen)에게 발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노력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메시지들 중에서 인용된 다음 인용문들에 선교사업의 목적과 초점이 명확히 진술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 2011년 9월 15일 / 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복종하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 2012년 1월 20일)

**WE WELCOME ALL PEOPLE
of ALL FAITHS.**
PRAYER is a UNIVERSAL LANGUAGE

All who come in pilgrimage
here are invited to join us
in prayer and the peace
that Heaven offers
at this site.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 입구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his life.



Pray to end abortion . . .
so all mothers and babies
can share in this moment.

www.RosaryOfTheUnborn.com

Large Rosary-\$24.95 USD plus S&H, Small-\$9.95 USD plus S&H
To order, call 440-327-4532 or order online.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Magnified view of bead

천국은 낙태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세상에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넘겨주는 무기는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 이다.”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3월 24일

2013년 3월 24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낙태중식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알다시피 낙태는 정복되면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범죄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넘겨주는 무기는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 이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하나 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와 같이, 각 단이 한 개의 주님의 기도 알과 세 개의 성모송 알로 된 5단의 짧은 묵주를 보여줍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세 번의 각 단을 다음 지향들을 위해 바쳐라:”

“제1단 - 하느님께서 잉태의 순간에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를 바라며.”

“제2단 - 모든 합법화된 낙태를 폐지하기를 바라며.”

“제3단 - 모든 임신부들이 태내의 귀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며.”

“제4단 - 낙태를 고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바라며.”

“제5 단 - 어떤 방법으로든 낙태에 관여해 온 모든 사람들 즉,

- 어머니와 아버지 들,
- 건강 보호 서비스 종사자들,
- 입법부 의원들,
- 생각이나 말로, 혹은 행동의 부족으로 낙태를 지지해 온 이들의 내적 치유를 바라며.”

“끝나고 다음 기도문을 바쳐라:”

“하느님 아버지, 부디 낙태의 오만한 행위에 대해 이 세대를 용서하소서. 낙태가 저희 마음과 이 세상에,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 입혀 온 많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소서. 진리 안에서 저희를 일치시키소서. 아멘.” ■



2013년 3월 25일

약 속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여기에 내가 조금 전에 네게 지시한,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얻는 이점, 말하자면 약속이 있다.”

- “이 짧은 묵주기도를 진심으로 바칠 때마다 낙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어떤 영혼이 마음을 바꿀 것이다.”
- “이 짧은 묵주기도를 진심으로 바칠 때마다 어떤 영혼이 낙태가 실제로 무엇인지 즉,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진리를 감수할 것이다.”
- “이 짧은 묵주기도는 낙태죄로 인해 너무나 크게 상처를 입으신 하느님의 성심과 인간의 마음 사이에 화해의 수단이다.”

“이것을 널리 알려라.” ■

2013년 4월 6-7일

하느님의 자비심 주일



2013년 4월 6-7일

하느님의 자비심 주일

“이것이 내 자비로운 사랑에 너희를 불러들이기 위해 내가 이 성지에 오는 이유이며 내가 내 어머니와 성인들을 여기에 보내는 이유다. 나는 절대로 영혼을 물리치지 않는다. 영혼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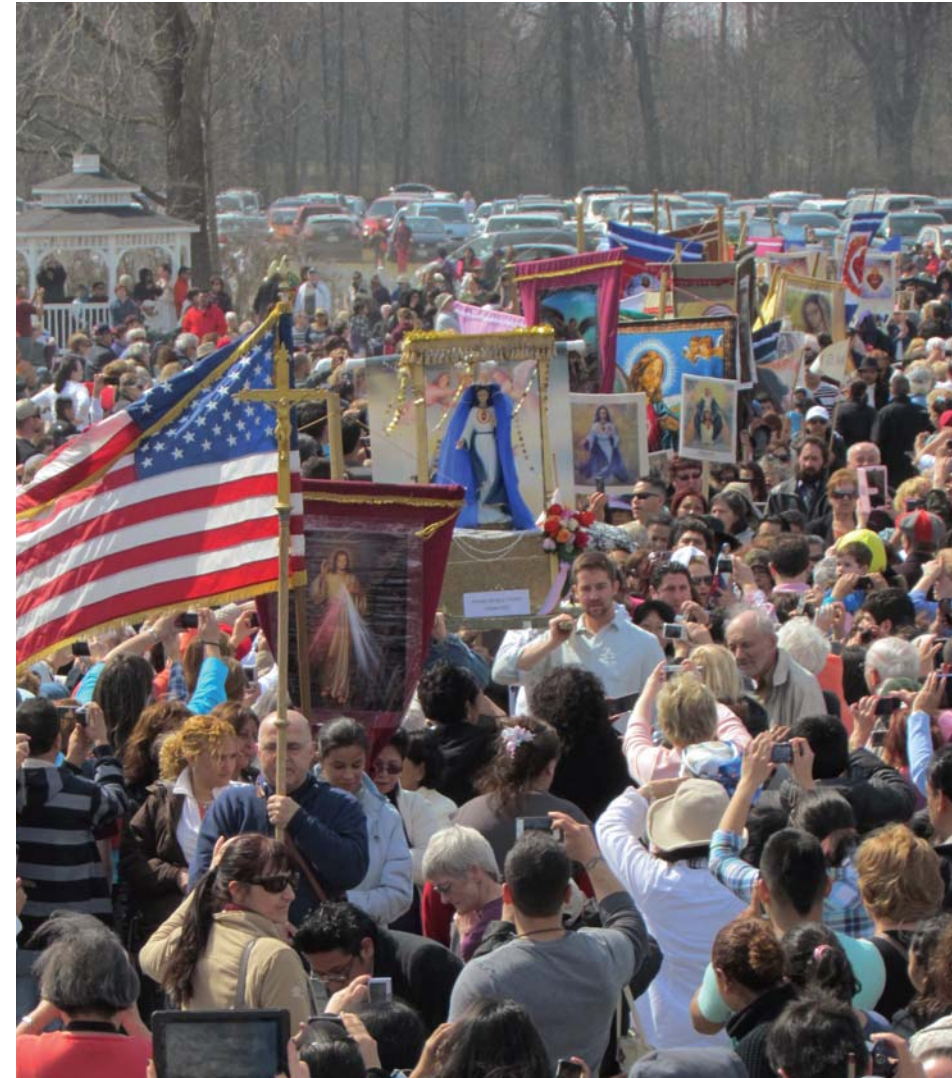
2013년 4월 7일

하나 되신 성심의 벌판에서 자정 기도모임



2013년 4월 7일

하느님의 자비심 축일



하느님의 자비심 축일

“이 선교회 전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여정, 그리고 이 성지에 수반되는 은총들은 모두 내 신성한 자비의 연장이며 분출이다. 이것은 진리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라.”



2013년 4월 7일

하느님의 자비심 주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한 자비의 주님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알렐루야!”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모든 인류의 미래의 복지가 내 자비에 내맡김에 달려 있는, 전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은총이듯이 모든 것이 또한 나의 자비다. 사람들, 사건들, 십자가들, 그리고 승리 등 모든 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나의 자비다.

“세상의 마음은 자유의지의 오만한 선택으로 인해 내 아버지의 성심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가고 있다. 정치계에서 그리고 서로 간의 태도에서 하느님의 뜻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 나는 내 자비의 시대에 뒤따를 나의 정의를 세상에 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인류는 하느님의 계명들을 무시함으로써 나의 정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 선교회 전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여정, 그리고 이 성지에 수반되는 은총들은 모두 내 신성한 자비의 연장이며 분출이다. 이것은 진리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라.”

“매 현 순간 모두를 각자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내 자비가 쏟아져 나온다. 내 자비인 위로와 은혜는 누구도 능가하지 못한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선교사업은 내 자비의 사절이고 내 정의의 시대의 전조다. 이 메시지들과 이 성지에 수반되는 모든 은총을 통해서 나는 영혼들을 나의 자비로운 성심 안으로 부르고 있다.

“나의 자비심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것은 사막의 한 가운데에 있는 시원하고 상쾌한 샘과 같다. 그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같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내 자비 없이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자비가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맛있는 캔디 한 조각과 같다. 아이가 캔디를 볼 수 있으나 그것을 먹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그 맛을 즐길 수 없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 신성한 사랑과 내 신성한 자비는 하나다. 둘 중 어느 것도 다른 하나가 없이는 성심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사랑과 자비가 너희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비는 사랑의 열매다. 나에 대한 너희의 의탁이 나를 향한 너희 사랑의 바로미터(지표)다.”

“내가 모든 진리로 이 일을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에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 형제자매들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신성하고 자비로운 사랑은 영혼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최후의 의탁이다. 누구든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자비로운 사랑을 선택하는 영혼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정신적 갈등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 자비로운 사랑에 너희를 불러들이기 위해 내가 이 성지에 오는 이유이며 내가 내 어머니와 성인들을 여기에 보내는 이유다. 나는 절대로 영혼을 물리치지 않는다. 영혼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을 배워라. 너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있다. 그것을 따라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이 나의 자비로운 사랑에 의탁하기를 간청하고자 또다시 왔다. 모든 마음과 모든 민족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에 따라 산다면, 너희는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대량 파괴 무기가 필요치 않을 것이며, 너희는 평화스러울 것이다.”

“너희의 모든 필요가 내 성심 안에 있다. 오늘 나는 너희의 청원을 내 성심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리고 너희에게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내리고 있다. ■

분별의 인장은 무엇인가?

분별의 인장은 천국으로부터 받는 뜻깊은 그리고 장엄한 선물이다.

“여기 이 성지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제공된 분별의 인장보다 지금 이 시대에 더 적절한 은총은 없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 - 2013년 4월 17일

아래에 기재되는 분별의 인장에 관한 메시지들은 이 위대한 선물을 자세히 그리고 그에 부속된 은혜를 설명합니다.

2013년 3월 1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이 성지 그리고 진심으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내 인장을 날인하고 있다. 이 인장의 보호 아래 영혼들은 뚜렷하게 놓여져 있는 그들 구원의 길 즉,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 규정된 길을 찾아낼 것이다. 오래된 죄악이 밝혀질 것이다.”

“내가 진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앞에 언급한 약속의 핵심이 이 안에 있다. 진심은 진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한다. 진리를 찾아낼 때, 그는 건전한 것을 무시하려는 동기로 오류를 찾지 않는다. 그는 있을 수 있는 오류는 언제나 그렇듯이 진리, 현실, 사실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정복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하여, 그의 마음은 믿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며, 진리에 열려있으려고 한다.”

“이 인장의 보호가 진리를 드러낼 것이다.”

저 (모린)이 여쭙니다: “과거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약속이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베풀어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불신임이나 불신에 향한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왔다면, 내 인장이 그들에게도 또한 놓여 있을 것이다.”

제가 여쭙니다. “다만 메시지들만 읽을뿐 재정이나 신체상의 문제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도저히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미소지으십니다. “천국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 기억하고 있느냐? 나는 이곳 성지에 오고 싶어하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갈망을 받아들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영적 인장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내 성심에 인장처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해준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떠나십니다. ■

2013년 3월 1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는 마음속에 사려 깊은 질문을 품고 있다. 내게 질문하여라.”

모린: “저는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곳 성지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구든지 메시지를 읽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인장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예수님: “그것은 그들이 변명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이 성지에 올 수 없을 경우에 한해 그리 될 것이다. 그것은 여기 성지에 오는 여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영혼은 스스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모린: “인장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우선,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주는 선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장이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자신의 영혼 상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또한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인장이다. 유일한 필요 조건은 진실한 마음이다. 내가 전에 말했지만, 진실한 마음은 진리에 열려 있는 마음이다. 이해하겠느냐?”

모린: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떠나십니다. ■

2013년 3월 22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와 함께 나를 보내신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에 마음을 열고 믿지 않을 이유를 찾지 않는 마음으로 이곳 성지에 발을 들여놓는 내 자녀인 그들은 그들이 나의 아드님이 그들의 이마에 날인하실 분별의 인장을 받음에 따라 내 티 없는 성심인 첫째 심방과 정화의 불꽃에 잠길 것이다. 이 기름부음(인장, 인호)은 너희가 내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보살피심을 받는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는 특정한 표지이다.”

모린이 말합니다. “복되신 어머니, 한 가지 여쭙봐도 되나요?”

성모님께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끄덕여 승낙하십니다.

모린: “만약 사람들이 이 성지에 오면서도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이 어쩌면 더 진실하게 성지에 다시 돌아와서 인장을 받을 수 있나요?”

복되신 어머니: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내 성심의 불꽃은 항상 접근하기 쉬운 것처럼 이 인장은 진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진다.” ■

2013년 3월 24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主 受難聖枝主日)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내 성심은 무거웠다. 나는 내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질 벌을 받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였다. 나는 이 선교사업과 그리고 그것이 질투하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사함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되돌릴 수 없었다.”

“오늘 나는 이곳 성지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에게 내 분별의 인장으로 위로를 준다. 그것은 진행하는 은총이다. 이 인장을 받는 영혼들은 내 앞에서 그들 양심 상태에 대해 계속해서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불신은 내가 주는 이 영적 인장의 선물을 거부한다.” ■

2013년 3월 2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다. 이들은 하느님의 법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낙태와 동성 결혼 같은 죄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이들은 나무에서 떨어져서 결코 성숙하지 못하는 익지 않은 과일과 같다. 하느님께서 익지 않은 과일을 창조하신 이유는 결코 깨닫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들은 기원이 없는 것 같고 보기엔 까닭 없이 방향을 바꾸는 바람과 같다. 믿지 않는 이들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고 어떤 동기도 옹호한다.”

“믿지 않는 이들은 또한 조금은 믿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은 열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이들이 왜 나를 몹시 슬프게 하는지 이유를 알겠느냐? 그들이 이 발현을 믿지 않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오류를 믿는다. 그들은 잘못된 모든 선택을 하여 죄가 법의 지지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곳에 오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분별의 인장을 제공한다. 그들은 그 인장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한다.” ■

2013년 4월 8일

주님 탄생 예고 축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아드님의 자비는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마음에 머무르신다. 그분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가장 큰 기적은 한 마음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많이 있다.”

“어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분별의 인장을 찍어주는 것이 내 아드님의 기쁨이었다. 천상은 아직도 기뻐하고 있다. 이곳에 오는 이들은 누구나 이 인장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 인장의 은총을 받지 못할 사람은 다만 진실하지 않은 마음, 곧 이곳에서 오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다. 이 인장은 미래에 선과 악의 선택에서 영혼들을 인도할 만한 가치가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

2013년 4월 17일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여기 이 성지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제공되는 분별의 인장보다 지금 이 시대에 더 적절한 은총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동안에 혼란과 타협이 수많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를 합법화하는 데 성공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 죄는 결코 ‘합법’이 아니거나 또는 하느님의 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별의 인장은 내 진리의 칼 끝입니다. 마음 안에서 진리가 패배하면 죄가 승리를 거둡니다. 분별의 인장은 영혼이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 안에서 죄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분별의 인장은 일단 영혼이 그것을 받으면 그의 남은 생애에 그를 따라다니는 은총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개될 때 이 분별의 인장이 사탄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할 것입니다.” ■

2013년 4월 18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 는 영혼들이 여기에서 제공되는 분별의 인장의 심오한 은총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께서는 이 불안한 시대에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인장을 제공하신다. 요즘 악이 정의, 곧 온전한 진실로 잘못 전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천상의 은총과 심지어 거룩한 성경 구절까지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많은 리더십(지도력)이 의로움을 옹호하기 보다는 자신이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해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십계명은 (사람들의) 선택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한 번 받은 분별의 인장은 영혼이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갈등없이 죄를 선택하게 하지 않는다. 이 인장은 영혼으로 하여금 선과 악의 차이 그리고 그의 선택의 결과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 인장은 하느님께서 한 번 주시면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일단 영혼이 이 인장의 보호를 받으면 지상에서 그의 나머지 여정 동안 그는 진리로 죄의 자각 ·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의 선택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며 혼란은 더 적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성실한 마음으로, 즉 이곳에 베풀어지는 은총의 어떤 오류를 입증하기 위해 여기에 오는 영혼은 이 인장에 의한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계속해서 그들의 거짓된 덕의 삶을 살 것이다.”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이 분별의 인장에 대한 믿음을 맹렬하게 방해한다. 그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인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믿는 이들은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에 정반대로 진리를 받을 것이다.” ■

2013년 4월 22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너희의 복지와 분별의 인장에 대한 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 왔다. 이 인장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뜨고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는 것에 도움이 되게 하는 보조자다. 진실한 마음은 성실하다. 그리고 불신하기 위해서 오류와 이유를 찾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 선교사업을 공격하는 오류들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데 눈을 뜬다.”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에 사로잡혀 이곳 성지에 오면서도 부인하고 불신하기 위한 거짓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지에 오고 싶지도 않으면서, 여기에서 천상이 활동한다는 현실을 멀리서 부정한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오류는 살펴보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이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짓이다.”

“진실한 마음은 진리의 의로움을 갈망한다. 이런 마음은 숨겨진 의도가 없다. 진실한 마음은 교만에 의해 잘못 인도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비추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도 잘못 인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선교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은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진리에 내맡긴다.” ■

2013년 4월 2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분별의 인장이 오늘날에 왜 그렇게 필요한지 이유를 말하겠다. 많은 권력자들 즉, 유명한 지도자들의 마음이 악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즉, 훨씬 더 큰 악을 조장하는 결정 그리고 세상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즉,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 지,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맹목적으로 순종한다.”

“분별의 인장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밝인다. 이 인장은 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이 큰 은총을 받은 이들에게 의로움, 곧 진리와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준다.”

“영혼이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는 방향이나 목적이 없는 길 잃은 양과 같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곳 성지에 서 나에게 그리고 내 어머니께 오너라.” ■

2013년 4월 2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는 대죄를 지은 영혼이 이곳 성지에 오면, 그 영혼 역시 분별의 인장을 받느냐고 묻고 있다. 이런 영혼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많은 인장을 받아 마땅하다. 인장은 내가 베푸는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 사랑과 자비를 보류하지 않을 것이다. 영혼이 이 은총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물론 자유의지의 선택 · 결정에 달려 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 각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

2013년 4월 2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 늘날 세상은 권세와 권력, 부와 영향력에 가장 큰 신뢰를, 대개 부당한 신뢰를 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것이 분별의 인

장을 이곳에서 주는 이유다. 분별 없이는 오직 그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청하러 왔다. 세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감명을 받지 말고, 다만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참된 가치를 찾아라. 이 진실된 특성은 언제나 겸손과 연관되어 있다. 이 한 쌍은 마음속에 있는 쌍둥이 속성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명을 받도록 거짓된 덕을 나타내는 위선을 조심하여라. 너희는 분별의 인장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진리는 너희를 위한 내 아버지의 뜻이다. ■

2013년 5월 27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흔히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도를 지나쳐서 진리의 영이 아니라 직함이나 지위가 그들을 대변하게 한다.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대항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오는 이유가 아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병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영혼에 듣는 약이다. 약이 그 기능 (효과)를 내려면 병을, 이 경우에는 독선적인 교만을 공격해야 한다. 천상이 이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에 구실을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성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요즘 마음속에 몹시 결핍되어 있는 참된 분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

2013년 5월 27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 는 거짓없는 분별과 거짓된 분별의 차이를 너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거짓없는 분별은 선과 악 즉, 진리 (진실)과 허위를 구분한다. 거짓없는 분별은 그 자신의 선입견에 의한 판단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거짓없는 분별은 하느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거짓없는 분별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한다.-거짓없는 분별은 절대로 성령의 활동을 모독하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을 지지한다.” ■

2013년 5월 2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유일하고 독특한 은사인 분별의 인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이 인장은 진리의 세례와 비교될 수 있지만 진리의 세례보다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진리의 세례는 (양심) 조명과 아주 비슷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혼 자신의 삶에서 진리를 알아보도록 영혼을 한 번 씻어준다.”

“반면에 분별의 인장은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친다. 영혼이 일단 이 인장을 받으면 그는 진리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평화로울 수 없다. 그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기만과 속임수에 매우 민감해진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옹호하라는 내적인 부름을 느낀다. 그것은 영혼이 내세에 도달할 때까지 그와 함께하는 마음의 가책(양심조명)의 인장이다.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이 인장을 받는다. 이들은 이곳의 이 메시지들과 내 선교사업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들을 계속 전파하여라. 이 메시지들이 영혼들을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하늘나라인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

2013년 5월 2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 는 오늘 무엇이 진실한 마음이고 무엇이 진실한 마음이 아닌지를 설명하기 위해 왔다. 진실한 마음은 믿음을 순수히 받아들인다. 진실한 마음은 이 선교사업이나 성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없다. 진실한 마음은 믿지 않음으로써 취하는 어떤 이득과 같은 개인적인 의도를 품지 않는다. 진실한 마음은 이 선교사업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진실한 마음은 이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을 논박하기 위해 이 성지에 들어서지 않는다. 그는 또한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은총이 참되다는 증거를 천상에 요구하지도 않는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는 하느님의 손이 필기하기를 기다리는 백지와 같고 또는 빈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부와 같다. 그는 많은 것을 예상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그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

“이곳에서 주어지는 은총의 프리즘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수만큼 각기 다르다. 아무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은총을 받지 않는다. 모든 마음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영혼이 이 성지에서 보내는 각 현 순간은 그 자체의 독특한 은총을 갖고 있다. 천상(계)는 각기 다른 감각 즉,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촉각까지 이용하여 여기에 천상의 현존을 선포한다. 그러나 분별의 인장을 받는 사람은 오직 진실한 마음뿐이다.”

“너희는 이 인장을 복사하거나 모방할 수 없다. 이 인장은 천상의 계획에 따라 이 성지 특유의 것이다.” ■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 축일 16주년

(이 메시지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심)

복되신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눈부신 빛을 온 몸에 받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의 축일에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칭호 아래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 각자가 너희 삶의 모든 면에서 이겨낸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바란다. 내 예수님이 너희 마음, 곧 예수님께서 크나큰 사랑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마음의 임금이 되시게 하여라. 오늘, 너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매 순간 받아들이므로써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결심하여라.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며 그분의 권능이 분명하게 드러나실 것이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 구원과 세상에 가장 큰 위협이다. 너희는 사실의 실재를 떠나서 진리에 대한 너희 자신의 해석을 만들어낼 수 없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들을 떠나서 너희 자신의 윤리 규범을 선택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기쁘게하기 위해 그분의 계명들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부부에 의한 태내 생명체 형성에서 창조주의 역할을 받아들이 때 까지 세상은 임박한 위험의 문턱에 달해 있다. 만일 인류가 회개하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 위험들을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드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는 이 세상 어디서나 평화와 일치를 얻을 것이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존재할 것이다. 그때까지 진리는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를 위해 갈등을 겪을 것이다. 사탄은 계속해서 전혀 예상 못한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세상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분별의 인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로, 나는 전에 없이 세상을 이곳으로 부르고 있다. 나는 모든 영혼이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로서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내 성심 안으로 부르는 사랑과 긴급함을 이해하여라. 내 성심의 불꽃은 진리 그 자체이며, 나는

큰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희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한다. 나의 부름은 시급하다. 지금 이 시대는 위험하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길을 잃도록 속임을 당해 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성심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마음을 거룩한 사랑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는 너희 주변에서 위험들을 보지 못한다. 가장 큰 위험은 너희를 향한 내 부름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진실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이곳에서 받는 분별의 인장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인 내 티 없는 성심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진실한 마음 즉, 진리에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성지에 발을 디디면서 즉시 내 성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의 식별력이 강화되며 그는 영원히 나의 거룩한 사랑의 자녀, 진리의 자녀다.”

“내 칭호인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는 참으로 피신처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의 지나가는 쾌락에서 찾는 평화의 포용(감싸 받아들임)이다. 이 칭호는 회의적인 (의심을 품는) 세대에 확실한 희망을 제공한다. 이 칭호는 내 티 없는 성심인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을 열어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가 이 성지에 있는 것은 너희의 천상 어머니가 너희를 이곳으로 불렀고 그리고 너희가 내 부름에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각 청원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받아들이고 천상으로 가져가 귀를 기울이시는 내 아드님께 바칠 것을 약속한다.”

“내 특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에 와 준 것에 대해 너희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



진리에 관한 메시지들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2013년 1월 24일

진리에 관한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의 반응을 위해 제공합니다.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사탄의 요기(妖氣)와 인류를 파괴하려는 그자의 욕구에 대한 사실을 상기시키게 하는 영적 전쟁의 전투 함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축일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또는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언제나, 바뀌 말하면 매일, 사람들의 마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도 진리의 승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양심 조명은 진리를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분별은 거짓의 영의 나쁜 열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낙태와 폭력과 타락을 조장하는 영입니다. 거룩한 사랑에 반대되는 진리는 없습니다.” ■

2013년 2월 5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는 나의 이말을 통해 주님께서 세상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진리는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진리는 다른 진리의 도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진리와 거짓이 서로 도전합니다. 진리의 반대는 악입니다.”

“진리를 악에 예측시킴은 진리의 현실 · 실재를 위태롭게 하고 위태롭게 함을 통해 진리를 악으로 변형시킵니다. 이와 같이 손상되면,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악에 무너집니다.” ■

2013년 2월 26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어떤 장미꽃이든 그 한가운데에 가장 강렬한 색채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이 선교사업은 세상에서 혼란과 타협의 가시 속에 활짝 피는 장미꽃과 같다. 그러나 장미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선교사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안다.

영혼이 이 메시지들을 철저히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선교사업에

감사한다. 이 선교사업의 아름다운 향기는 진리 그 자체다.”

“나는 지난달 [1월 24일]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메시지 중에서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는 말을 꼭 되풀이하고 싶다. 이 몇 마디 심오한 말에, 모든 반대는 사탄의 거짓말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함으로써 너희 마음속에 진리가 꽃피게 하여라. 타협의 가시 사이에 피어 있는 진리의 장미꽃이 되어라.” ■

2013년 2월 27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나는 이 선교사업을 한 장미꽃에 비유하였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이 선교사업 자체를, 내면의 향기는 진리의 기초로 비교하였다. 오늘 나는 장미의 외면의 아름다움과 향기, 이 둘은 합쳐져 하나가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둘은 함께 받아들여진다.”

“이 개념은 이 선교사업에 확실히 적용된다. 메시지들은 그것들 자체의 가치에 의해 진가를 인정받지만 진리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더욱 높이 평가를 받는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전체를 이룬다.”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의견은 가치가 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그들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내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장미꽃의 외면의 아름다움이 장미의 향기를 즐기도록 너희를 이끄는 것 처럼 이 선교사업 자체인 이 메시지들의 아름다움이 영혼을 진리로 이끈다.”

“이 선교사업 뿐 아니라 삶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이 진리에서 시작하고 진리로 끝난다. 영혼들은 거짓 안에서 살고 거짓 안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관은 진리다.” ■

2013년 3월 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진리와 타협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진리가 최소의 타협에라도 희생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 타협에 근거할 때, 그 여론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력과 타협된 목표에 이르게한다.”

“내 영광은 진리 안에서 너희에게 오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둔다. 내 진리의 기초는 거룩한 사랑이다.” ■

2013년 3월 11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는 결코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 진리는 지도하고 방향을 고쳐준다. 진리는 절대로 악을 감싸지 않고, 드러낸다. 진리를 선택하는 영혼은 나를 따르고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른다.”

“진리에는 타협이없다. 진리에는 숨은 의도가 없다. 진리는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진실의 빛에 의해서만 좌우될 수 있다.”

“진리는 모든 죄악을 씻어낸다. 그러므로, 진리는 너희의 성화의 길이다.” ■

2013년 3월 12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화의 씨앗이 아니라 진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온다.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진리의 계시에도 인간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에 있다. 진리 자체인 거룩한 사랑은 평화의 토대다. 오래 지속되는 다른 길이 없다.” ■

2013년 3월 15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너희가 오늘날 위선의 어둠에 덮인 세상에서 진리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렇게 하여라. 천상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3년 3월 18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진실한 마음과 진실하지 못한 마음의 차이를 이제 잠깐 설명하겠다. **진실한 마음은 진리에 열려 있으며 기꺼이 진리를 따르려 한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은 이 소유지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믿지 못할 만한 이유(핑계)를 살피면서 온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3년 4월 12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알렐루야.”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내 형제자매들아, 진리, 곧 거룩한 사랑에 전념하여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속에서 진리가 타협되게 하지 마라. 이것은 확실하게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3년 4월 14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날 사회는 그 자체의 진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진실은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에 맞는 것이다. 생활양식은 더 이상 십계명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공공의) 도덕은 하느님 중심이 아니고 이기적이다.”

“이 문제들은 사회의 모든 지위에 두루 미친다. 사탄은 직함이나 재산, 권력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다. 각 개인의 구원의 원수는 소명이나 대중의 존경,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도 존중하지 않는다. 실은 영혼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탄은 그를 더욱더 괴롭힌다.”

“나는 죄로 이끄는 모든 공격이나 유혹을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너희를 더 잘 안다. 그자의 함정은 대개 교활하고 은밀하다. 언제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강해져라. 이것이 사탄이 굴복할 무기다. 너희가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아낼 때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 의탁하여라.” ■

2013년 4월 1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자비에 대한 순수한 의탁은 평화로 가는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요즘 영혼들은 내 자비로운 사랑보다는 그들 자신과 그들 자신의

노력을 더 믿는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내 자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교만한 많은 마음이 무엇이든 천상으로부터 그들에게 온다는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로 불신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진리는 지지의 부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진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치 않는다. 진리는 어떤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는 언제나 내 자비로운 사랑의 분출이다. 내 자비로운 사랑을 신뢰하는 영혼들은 내 진리의 승리 역시 신뢰할 것이다. 이 승리는 선과 악을 가려내는 그리고 인간에게 내 자비에 대한 그의 의존을 드러내는 키(풍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13년 4월 26일

슬기로운신 성모 마리아 축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이 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각 마음에 새겨주고 싶은 것이다. **순종을 절대로 진리 위에 두지 마라.** 내 아드님이 지상에서 당신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에게 충실하기 위해 진리의 영을 부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둠을 받아들이고 거짓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을 위한 순종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신다.” ■

2013년 5월 9일

주님 승천 축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기도는 악을 제압하고 진리를 밝힌다. 악은 진리를 왜곡하고 양심과 생활의 상황들 또한 타협한다는 것은 항상 그러하다. 악의 세력은 매일 헤드라인 뉴스로 취급된다. 범죄들 중 어떤 것은 너무나 극악하여 더 이상 충격적인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마음들은 악의 존재를 거의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거룩한 사랑 밖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내 눈에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내 자비는 누구든 회개하는 마음 위에 쏟아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부디 이해하여라. 가장 타락한 죄인이라도 내 자비를 받을 만하다.”

“오늘 나는 악이 어둠 속 어디에 숨어있든 진리의 빛이* 그 악을 밝히도록 너희가 기도하기를 각별히 청하러 왔다. 가면에도 불구하고 악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도록 기도하여라. 마음속에 있는 악이 빛으로 흘러나와 내 자비 안에서 소멸되도록 기도하여라.”

* 진리의 빛은 성령입니다. ■

2013년 5월 1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너희가 순간 순간 내리는 결정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너희가 이해하기 바란다. 전체적으로 문화의 도덕적 타락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많은 개개의 현 순간에 이루어진 자유의지의 선택들의 결과다.”

“사회가 갑자기 낙태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우선, 매스 미디어 (대중 전달 매체)가 이런 죄들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양심을 둔하게 하고 선과 악 사이의 선택들을 보다 적게 눈에 띄게 한다. 결국 인류는 하느님께서 정하시는 것보다 그가 원하는 것을 택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화가 무너지고 사회가 비도덕적이 된다. 오늘날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이런 선택들이 더욱 빨리 성행하게 되고 현저하게 널리 퍼지게 된다.”

“너희의 국가 지도자들이 도덕의 타락을 묵인할 때, 사회는 소동과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몰락과 다를 것이 없다.”

“나는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이제는 죄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죄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을 그만둘 때다. 이 죄들은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 죄는 언제나 죄일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여라. 남녀 사이의 결혼을 존중하여라. 하느님을 너희 마음과 너희 삶의 중심에 두어라. 진리를 재정의하지 마라.” ■

2013년 5월 19일

성령 강림 축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얼마나 간절히 세상의 마음을 모든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불꽃으로 감싸고 싶은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죄는 죄로서 주시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죄는 개인의 자유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죄의 진상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인류는 오만하게 그리고 양심의 가책 없이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변경하였다.”

“전반적으로 잘못을 받아들임으로 양심이 둔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자비를 계속 추구하지 않는다. 내 정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는 그의 잘못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에 대해 그 자신의 해답을 찾고 하느님은 제외되고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오직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서는 것이 더욱더 긴급해져야 한다.”

“나는 여기 이 성지에서 진리를 세상에 붓고 있다. 진리의 영은 이 메시지들의 핵심에 있다. 내가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여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여라.” ■

2013년 5월 20일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진리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언제나 교만입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집착이나 질투, 권력이나 재물, 명성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요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진리를 지닐 수 없었습니다.” ■

2013년 5월 20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은 기후나 테러리즘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진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너무나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피신처를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3년 5월 21일

빛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축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오늘 빛의 어머니인 내 축일에 너희에게 왔다. 따라서 나는 또한 진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제안한다. 내 아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완전히 진리 자체이시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 (칭호)를 겸손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진리의 빛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기 바란다. 원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손상하는 온갖 타협안을 제시한다.”

“나는 너희를 잘못에서 이끌어내어 진리의 빛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곳 성지에 계속해서 온다. 진리는 올바른 이성을 지지하고 너희를 결코 혼란으로 이끌지 않는다. 나는 거룩한 사랑을 통한 완덕의 길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다. 진리의 빛인 이 길로 기꺼이 들어가고 절대로 떠나지 마라.” ■

2013년 5월 2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요즘 사람들은 악에 협력하면서 선을 피하거나 심지어 맞서기까지 한다. 이는 사람들이 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내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에 응답하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진실’을 지어낸다.”

“진리는 사악한 계획에 맞춰 그 정의가 다시될 수 없다. 진리는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는 않지만 종종 도전을 받는다. 오늘날 도전은 영혼이 진리의 실재를 알아보고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모든 영혼이 그렇게 한다면 거룩한 사랑에 반대는 없을 것이다.” ■

2013년 5월 30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매 현 순간 낙태를 고려하고 낙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이번에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승리는 오직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승리를 통해서만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누가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이곳에서 봉헌되는 기도와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의 천상 선교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반대하는 것이다.” ■

2013년 6월 1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현대의 문제들의 복잡성은 인류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 거룩한 사랑은 진리라는 사실을 미뤄 볼 때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의 바탕으로서 이 진리의 (안전한) 닻을 사용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너무 많은 선택이 혼란에 이르는 길인 타협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이 모든 도덕적 타락의 기초이다.”

“아직 보지 못했다면, 너희는 악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속에) 악을 받아들이고 (겉으로는) 선으로 위장하기 위해 비밀에 싸여 왔던 것(계획)이 밝혀지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일상적이었던 것을 비밀에 부치도록 강요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시대는 처음에는 아마 알아볼 수 없을 것이며, 사실상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는 오고 있다.” ■

선교사업과 선교회에 적합한 추가 메시지들

2012년 1월 1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너희의 행복과 안녕은 거룩한 사랑안에 소중히 보호되어 있다. 사탄이 거룩한 사랑 주변에 속임수의 연막을 쳐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까이 있는 보물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찾지 않는다면, 너희는 진리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진리를 향하여 너희 마음의 문을 잠근다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들 자신의 신앙이 약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거룩한 사랑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를 무장 해제하고 약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에 대한 불신이다. 나는 이런 마음 안에서는 내 왕국을 세울 수 없다.”

“내 왕국은 진리의 기초이자 새 예루살렘인 거룩한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나는 너희가 마음에서 오류와 사탄의 속임수를 없애고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내 왕국을 세울 수 있게 허락하기를 바란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평화와 안전을 찾을 것이다.” ■

2012년 12월 2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 선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고 언제나 그렇게 이어질 이유를 말하겠다. 이 메시지들과 여기에서의 모든 은총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한 사랑의 정신안에서 일치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다.”

“나는 단일 세계 지도자나 종교 아래 너희의 일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의 일치를 찾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이를 환영한다. 여기에서 너희의 평화를 찾고 평화를 누려라.”

“아무도 이 선교사업을 정확하게 가톨릭으로서 재정의해서는 안된다. 내 사랑의 계명들 즉, 거룩한 사랑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

2013년 1월 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 선교사업의 취지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통해 세상의 마음이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진리이므로 천상의 부름은 모든 영혼이 거룩한 사랑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선교사업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1. “메시지들을 읽고 공부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실천한다.”
2. “매 현 순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3. “세상의 마음이 낙태죄를 뉘우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태 아 묵주기도를 바친다.”

“이 선교사업은 세상의 마음을 내 아버지의 뜻에 순응케하기 위한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영적 일치 운동이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013년 1월 10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 선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타협의 대안으로서 이곳에 있다. 이 선교회는 혼잡으로부터의 탈출이며 기도와 명상의 장소다.”

“초자연적인 수준에서 이 선교회는 은총의 장소이며 총애의 장소다. 이곳은 죄와 오류와 큰 혼란의 세속적인 사회에서 휴잠 (잠깐멈춤) 의 평화다. 영혼들은 이곳에서 진리의 실체와 접촉할 수 있다.”

“나는 영혼들이 라벨과 비난에 의해 단념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너희가 믿으면 믿을수록 천상은 더욱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6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l@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lylove.org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보편된 평신도 사도 모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재건하려는 열망은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성령의 부르심이며, 이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공동 기도가 요구된다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821 조항은 기술합니다: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 주님, 여러 성인 성녀들이 이 마라나타 성지에 발현하십니다. 메시지들은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즉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 성화를 성취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목 차

낙태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무기	페이지 3
하느님의 자비심 주일	페이지 4
분별의 인장	페이지 14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 축일 16주년	페이지 18
진리에 관한 메시지들	페이지 19
선교사업과 선교회에 적합한 추가 메시지들	페이지 23

자원 봉사, 의견과 제안

자원 봉사자 - 항상 필요합니다.

봉사 희망 연락처: volunteers@holyllove.org

뉴스 레터 신청: 우편물 수취인 명부를 위해
성함과 주소를 c/o Newsletter
Editor에게 또는 이-메일로 등록
하십시오.
newslettereditor@holyllove.org

의견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newslettereditor@holyllove.org

행사나 활동에
대한 정보: www.hollylove.org
www.hollylovekorean.org

하나 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께
건네어 드립니다.